

“즐거운 과학” - 음악미학과 음악분석을 다시 생각함

이 미 경

평소 음악을 듣거나 그에 대해 생각하면서 필자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던 문제가 있다. 분석이나 미학적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이한 정신적 반응의 정체이다. 나는 종종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나의 정신이 하늘로 끌려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닿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작가가 이 작품에 그러한 세상을 재현하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작가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작품의 무언가가 나의 뇌 어느 부분을 건드려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칸트가 말하는 바, 나의 뇌 속에서 ‘상상력과 오성의 기가 막힌 균형’이 일어나서일까? 아니면 그가 말하는 ‘숭고’의 감정이 일어나서일까? 그러나 내가 말하는 ‘정신적 흥분’은 이와는 다른 의식의 종류라고 생각된다. 영적 세계로 고양되는 듯한 ‘종교적 체험’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혹은 약을 먹고 환각상태에 빠지는 것과 무당이 춤과 노래를 부르다 트랜스 상태에 빠지는 것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유사해 보인다. 말하자면 미적 주체가 미적 대상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미적 체험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를 음악학자가, 혹은 미학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주제 아닌가?

먼저, 나는 이 정신 상태가 음악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음악분석과 음악미학의 연구 주제로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말할 것이다. 음악분석의 방법론이 확장되어야 하며 음악미학의 연구영역이 새로운 범주를 받아들여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I. 음악인류학이 나에게 말하는 것

메리암이라는 음악인류학자는 음악의 기능을 10가지로 분류하였다. 감정표현, 미적 즐거움, 오락, 의사소통, 상징적 재현, 신체반응, 집단과 사회의 규범을 강화함, 사회제도와 종교의식의 성립, 문화의 지속과 안정에 기여함, 사회통합에 기여함이 그것이다. 앞의 5가지 기능이 주로 서구음악사회에서의 음악의 기능이라면 뒤에 있는 5가지 기능들은 주로 비서구권 음악문화에서의 음악의 기능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트는 메리암이 언급한 이 10가지 기능에 대해 언급하면서 음악이 사용되는 맥락과 기능이 사회마다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독보적이며 유일하게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맥락은 종교, 즉 그 문화에 존재하는 신을 섬기고 찬양하고 신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라고 말한다.¹⁾

음악은 매우 문화적이다. 그래서 문화마다 다른 양식과 기능을 갖고 있는 음악이 있다. 그러나 그 다양성 가운데서도 인류는 음악을 하나의 방향, 신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고집하게 되었다. 왜

1) B. Nettles, *The Study of Ethnomusicology: Twenty-Nine Issues and Concepts.*, 1983 & 2005, Univ. of Illinois Press; S. Mithen, *The Singing Neanderthals: The Origins of Music, Language, Mind and Body*, 김명주 옮김,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08, 29쪽에서 재인용.

그랬을까? 또한 음악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강력하게 사회적 결합에 기여한다. 쉽게 여러 사람의 감정을 통합해서 사회적 협력을 이루어낸다. 록 콘서트 장을 가 본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무대 위의 가수를 ‘신’처럼 여기며 모두 하나가 되어 미친 듯이 열광한다. 또 위에서 메리암이 언급한 음악의 열 가지 기능에서는 빠져 있지만,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사회에서 음악은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는 마취제 대신 사용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음악의 기능 혹은 능력은 신화적인 고대사회나 아직도 ‘미개한’(?) 부족사회를 이루고 있는 종족(요즈음 미개하다고 정의할 수 있는 부족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들의 음악에서만 나타나는 일일까? 서구의 예술음악을 창작하고 감상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음악의 작용들은 관여하지 않는 것일까? 왜냐하면 음악의 이와 같은 작용들이 서양예술음악을 설명하는 미학이나 분석 책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거나 부차적인 현상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과학적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러나 모차르트의 음악이 음악치료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음악의 어떤 요소들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팔레스트리나의 음악을 들으면서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이유가 되었던 요소들 중 일부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특이한 정신적 현상을 일으키는 음악의 힘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이 힘은 오늘날 현대음악 작품 중에도 활용되고 있지는 않을까? 작곡가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이 마력같은 음악의 힘이 어떻게 하면 발휘되는지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 그것을 몸에 익혀 자신의 작품에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닐까?

앞에서 언급한 음악의 여러 기능 혹은 능력들(음악을 통해 영적 세계

로 들어가는 듯한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것, 강력한 사회적 통합이 일어나는 것, 정신의 혹은 신체의 여러 가지 병이 치유되는 것 등)이 하나의 동일한 신경작용의 다른 현상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지적 · 감정적 과정들은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일 것이며 아직 연구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가깝다. 또 내가 지금 막연하게 언급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엑스터시’라는 것도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 창작의 순간에 빠져들어가는 ‘엑스터시’(많은 작곡가들이 이 ‘순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와는 어떻게 다른가? 인간의 ‘감정’에 관한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음악이 일으키는 이러한 작용들이 왜 발생하며,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²⁾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음악적 작용들이 나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이러한 반응들 중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우리 뇌가 뭔가를 의식하기 이전에, 우리의 정신과 신체가, 음악에 직접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그것은 나의 의지에 반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예를 들어, 나는 록음악을 구조적으로 듣기 원하지만 내 몸은 나의 그런 의지와는 상관없이 리듬에 반응한다. 또 나는 바그너라는 인간을 싫어하고, 그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홀리려 한다는 것이 더욱 더 싫어서 그의 음악을 들으며 나까지 홀림을 당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그런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발퀴레>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미

2) 음악과 감정이라는 책을 편집했던 슬로보다의 감정이 음악과 맺고 있는 그 깊은 관계에 비해 양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놀랄 정도로 적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나온 책 중 가장 권위적인 음악심리학 책인 Deutsch의 *The psychology of music*, (California: Elsevier, 1999)에는 감정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감정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책인 Lewis & Haviland-Jones의 *Handbook of emotions*(New York: Guildford press, 2000)에는 음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P. N. Juslin & J. A. Sloboda, *Music and Emotio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3쪽).

바그너에 홀려 있는 나를 발견한다. 한슬릭이 그렇게도 혐오했던 “바이로이트의 전용사원에서 노래되고 연주되는 아편중독”³⁾에 나도 빠져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의지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인식하기 이전에 이미 나의 몸이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혹은 창작하거나 연주할 때 빠지게 되는 이러한 ‘준 환각상태’나 ‘몸의 생리적 반응’ 등은 ‘이념적 구성물’이 아니라 ‘뇌세포들의 이리저리한 신경작용을 거친 반응’이다. 나의 뇌는 음악을 구조적·분석적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리듬에 발을 구르고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억눌린 성적 억압의 출구를 찾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 음악을 구조적·분석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하거나 ‘무관심적 관조’의 태도로 들으려 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의식을 뚫고 일어나는 ‘현실’이다.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악행위에 참여하거나 청취하는 순간에 이러한 음악의 ‘비미(非美)적 작용들’은 ‘미적 판단’들과 함께 일어나 우리의 의식 속에서 혼재되어 ‘순수한 미적 판단’을 분리해 내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작용의 강력함이 우리는 순수하다고 믿고 있는 ‘그’ 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의식을 다른 종류의 현실(트랜스 상태의 현실처럼)로 옮겨놓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3) Hanslick, E., Vom Musikalisch-Schönen, Wiesbaden:Surkamp, 1980, 이미경 옮김, 『음악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서울:책세상, 2004, 20쪽.

4) 그러므로 우리가 음악을 창작하거나 연주하거나 감상할 때, 즉 음악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의식상 혹은 행동상 나타나는 반응의 스펙트럼은 -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들도 많다는 의미에서, 또한 19세기 이래로 올바른 미적 태도로 지목되어 온 ‘무관심적 관조’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극히 일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을 수 있다.

II. 철학이 나에게 말하는 것

인간의 의식, 혹은 사유하는 주체, 혹은 지각하는 주체는 하나가 아닐 수 있다. ‘지금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느끼고 있는 나’ 외에 ‘그 멜로디에 움직이고 싶지 않지만 저절로 움직이고 있는 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대상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의식 외의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 나의 뇌 안에 ‘여러 명의 나’가 있다.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 이 서로 다른 ‘나’ 들은 그 음악에 대해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 가장 최근의 교육에 의해 무장된 나의 ‘의식적 뇌’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음악을 분석적으로 듣고자 한다. 나의 뇌의 다른 부분(의식의 일종일 수도 있고, 무의식의 일종일 수도 있겠지만)은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억눌린 성적 억압의 출구를 찾는다. 또 나의 뇌의 200만 년 전부터 진화해온 아주 오래된 부분은 초기 인류의 조상이 음악에 반응했던 것과 같이 반응한다. 그러므로 ‘여러 명의 나’란 여러 차원으로 반응하는 나의 뇌의 부분들이 만들어낸 정신 상태의 스펙트럼을 이르는 말이다.

하나의 통일된 주체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근대 철학에서건, 주체의 ‘분열’, 주체의 ‘소외’를 말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서건, 지금까지의 철학에서는 ‘주체의식’이 형성되기 이전의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 공동의 음악활동을 통한 ‘주체의식의 흐려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다. 인간의 뇌 속에 아주 오래 전부터 동물로부터 진화해온 이런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영역이 지금도 음악적 자극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의식 혹은 무의식의 영역 중에 주객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의식, 혹은 주객의 관계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는 그런 의식 혹은 무의식의 영역은 없을까? 나는 이와 비슷한 생각을 최근 로이 애

스콧의 책⁵⁾에서 발견했다. 로이 애스콧은 무당의 트랜스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당은 그 트랜스 상태를 통하여 현세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의 가장 바깥 쪽 한계를 넘어 다른 세계로 여행할 수 있는데, 그 초자연적인 공간은 육체적인 의례와 정신적 수련을 통하여서만 도달하게 되고, 때로는 식물요법의 도움을 받아서 접근하기도 한다.⁶⁾

애스콧은 ‘두 개의 현실’ 사이를 부유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애스콧은 이 상황을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접붙였다. 우리는 온라인 상의 나와 현실 세계의 나 사이에서 부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마약에 빠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당의 경우처럼 어떤 요법이나 노래와 춤을 통해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일상에서도 음악을 들으며 잠깐 그와 비슷한 세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 여러 명의 나를 만들어내는가, 혹은 주객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가에 대해 말해야 한다. 나는 음악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아야후아스카(ayahuasca)를 마시고,⁷⁾ 이중의식의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음악을 통해 이중의식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여러 사회, 여러 종족에서 자주 발견되기 때문이다. 종족음악학자인 블랙킹은 벤다 지역의 주민들이 음악을 하면서

5) R. Ascott / 이원곤 옮김, 『테크노에틱 아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6) 위의 책, 60쪽.

7) 남미 원주민의 의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산토다임 공동체라는 종교집단의 의식에서 2종류의 식물의 뿌리와 줄기로 만든 ‘아야후아스카’라고 불리는 환각작용이 있는 음료수를 섭취한다. 이 전통은 수백 년 동안 전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위의 책, 167쪽.

트랜스 상태에 빠지는 것을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벤다 음악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다. 오히려 현실, 곧 영적 세계의 현실로 향하는 모험이다. 그것은 개인의 의식이 공동체의 집단적 의식 안에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는 더욱 풍요한 문화적 형태의 근원이 된다는 생성의 체험이다.⁸⁾

물론 블랙킹의 위의 발언은 애스콧처럼 노골적으로 두 개의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동안 벤다 지역 사람들과 생활을 함께 한 한 종족음악학자의 눈에 그들의 음악 행위가 ‘현실도 피’나 ‘망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과는 다른, 공동체의 집단적 의식을 통해 성장하고 만들어진, 적어도 ‘영적인 다른 세계’를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나는 이것을 ‘두 개의 현실’이라고 보든, 혹은 ‘한 개의 현실과 한 개의 착각(환상)’으로 보든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양자가 모두 우리 뇌의 작용에 의해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지만, 다른 하나는 ‘환상’이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이 ‘트랜스 상태의 현실’ 혹은 ‘환상’을 만들어 내는 음악의 특정한 구조, 혹은 음악이 일으키거나 음악의 매개로 발생하는 음악을 둘러싼 환경의 특정한 구조가 궁금하다. 나는 이러한 작용들이 현대음악에 올수록, 그리고 비서구음악영역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음악미학이나 음악분석이 이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겠는가?

8) J. Blacking / 채현경 옮김, 『인간은 얼마나 음악적인가』, 서울: 민음사, 1998, 44쪽.

III. 진화심리학이 나에게 말하는 것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음악의 감정적 반응 중 일부는 ‘귀-청각 피질 회로’보다는 ‘귀-소뇌-중격의지핵-변연계’로 이어지는 회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⁹⁾ 후자의 경로는 전두엽이 아니라 소뇌를 통해 일어나므로 전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이다. 소뇌는 매우 원시적인 뇌 구조이다. 이것은 우리가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방식이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아주 오래된 과거의 인류는 음악을 어떻게 들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학문이 ‘진화심리학’이다.

진화심리학자 중 스티븐 핑커가 음악학자들 간에 더욱 더 유명해진 이유는 그가 음악을 “비적응적 부산물”¹⁰⁾, 생존에 반드시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부수적으로 생겨난 “청각적 딸기치즈케이크”로 명명하면서부터이다. 이 말은 음악학자들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핑커 뿐만이 아니다. 이안 크로스에 따르면, “음악은 “장식”이라고 주장하는 스펠버(Sperber)나 음악이 “근육의 결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하는 맥닐(MacNeil, 1995)나 코간(Kogan, 1997) 등이 모두 핑커류에 해당한다.¹¹⁾ 그러나 음악학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진화심리학자들의 논의와 이에 저항하려는 음악학자들의 노력은 음악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붙게 하고 이로 인해 ‘Biomusicology’라는 진화심리학과 음악학을 결합한 새로운 학문

9) D. Levitin / 장호연 옮김, 『뇌의 왈츠』, 서울 :마티, 2008, 242쪽.

10) Steven Pinker / 김한영 옮김,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서울: 동녘 사이언스, 2007, 804쪽.

11) I. Cross, “Is the music the most important thing we ever did?” Music, development and evolution, *Music, Mind and Science*, ed. by Suk-won Yi, Seoul: Seoul National Univ. Press, 1999, 10-11쪽.

영역이 탄생되기에 이르렀다.¹²⁾

당연히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음악이 진화의 우연적인 부산물이나, 아니면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보다 인류의 마음에 음악이 어떻게 작용하기 시작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르게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 원시적 작용 중 어떤 요소가 아직도 우리 뇌의 음악적 반응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에 있다. 200만년 전 우리인류의 조상에게 음악이 작동했던 방식이 지금까지 우리 뇌에도 남아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의식의 혹은 무의식의 어느 일부분에선, 석기시대 사람들처럼 음악을 듣고 있다면, 그 문제는 분명 오늘날의 음악미학과 음악분석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미스 미텐이라는 진화심리학자가 주장하는 원시언어의 일종인 ‘흠(Hmmmm)’ 가설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뇌영상기법에서 음악과 언어 간의 활성화영역 중 많은 부분이 공통적임이 입증되면서 파텔이라는 학자는 구문통합공유가설(shared syntactic integration resource hypothesis, SSIRH)을 주장하였다. 음악과 말은 처음에는 같은 신경생물학적 기원을 갖고 같은 부위에서 같은 신경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처리되다가,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경험을 쌓고 세상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결국 음악과 언어를 전담하는 경로를 따로 만든다는 것이다.¹³⁾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음악은 언어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독립적 영역을 갖고 있다. 그것은 병변 연구¹⁴⁾에서 나타난다. 실어증에 걸린

12) N. L. Wallin, B. Merker, and S. Brown(eds.), *The Origins of Music*, Cambridge, MA: MIT Press, 2000.

13) A. D. Patel, “Language, music, syntax and the brain”, *Nature Neuroscience* 6(7), 674-681쪽.

14) 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몸의 생리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

환자의 음악적 능력에 손상이 없으며, 실음증에 걸린 환자 역시 언어적 능력에 별 손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¹⁵⁾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발달적 측면을 살펴보면 음악이 언어의 메카니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것¹⁶⁾, 음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자신의 메카니즘을 갖고 있으며 그 과정의 발달 중에 언어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화심리학자인 스미스 미텐이다. IDS (Infant-directed speech)는 아직 완전한 언어능력을 획득하지 못한 유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독특한 방식을 이르는 용어이다. IDS의 일반적 특징은 목소리를 높이고, 높낮이 폭을 다양하게 하며, 모음을 ‘강조해서’ 길게 발음하고, 쉼표를 분명히 하고, 짧은 어구를 쓰며 되풀이를 많이 한다. IDS를 통해 어른들은 아기들에게 금지, 주의, 명령, 위로 등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런데 IDS의 주요한 목적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있지 않다. IDS의 과장된 운율은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적 결속을 일으키는 것에 있다고 한다. IDS와 더불어 엄마가 아기들에게 불러주는 노래는 더욱 더 큰 위력을 발휘해서, 트레허브의 연구에 따르면 IDS와 엄마가 불러주는 노래는 아기의 생존율을 높이고 엄마와 아기 사이의 결속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미텐은 인간이 언어를

15) S. Mithen / 김명주 역,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 49-96쪽. 음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경의학적 증상에 대해서는 O. Sacks / 장호연 옮김, 『뮤지코필리아』(서울: 알마, 2007)를 참고하라.

16) IDS(Infant-directed speech)와 PDS(Pet-directed speech)연구는 이들의 메카니즘이 사회관계와 감정상태와 관련한 음악적 메카니즘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기들은 이것을 음악으로 듣는다. 음악으로 듣고 이해하는 기간이 언어로 이해하는 시기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회적 문화적 조건이 거의 없는 신생아의 경우에도 음악에 생리적으로 반응하며 그것이 생존율을 높인다는 증거가 있다. 어머니들은 대개 IDS를 따로 배우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이 일을 하며, 부모들이 음악과 닮은 발화와 몸짓을 하는 것은 언어 습득을 촉진하기에 앞서 아기의 감정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텐은 말하고 있다.

17) S. E. Trehub, “Musical predispositions in infancy: an update”,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Music*(ed. I. Perez & R. Zatorre), Oxford: Oxford Univ. Press,

진화시키기 전의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 이전의 호모 속들이 사용했을 의사소통의 수단이 IDS의 음형들과 유사한 종류의 음악이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미텐은 이 원시 언어를 ‘전일적이고 조작적이며 음악적인 언어’, 즉 전일성(Holistic)의 H, 다중성(Multi-modal)의 m-m, 조작성(manipulative)의 m, 음악성(musical)의 m을 따서 ‘흠HmMMM’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원시언어와 호모 사피엔스 이후 인류가 사용하게 된 언어와의 차이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미텐은 이 원시언어가 일반 언어처럼 ‘지시적’이 아니라 ‘조작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차이라고 말한다. ‘조작적’이란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 인사, 경고, 명령, 위협, 요구, 달랠 등 - 을 말한다. 그는 인간과 유사한 원숭이나 고릴라 등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신호음’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원시언어의 특성이 ‘조작적(‘지시적’인 것이 아니라)’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즉 수놈 고릴라가 암놈 고릴라에게 손짓을 하는 것은 나에게 오기를 ‘바라본’ 행위이고 동료들의 행동을 조작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고릴라가 동료들에게 세상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¹⁸⁾ 제스처를 생각해 보면 된다. 우리는 말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새 많은 제스처를 사용한다. 그 제스처들은 어떤 내용을 지시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내 감정을 표현하거나 내 감정상태로 상대방을 이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 제스처가 수화로 발전하면 그 때는 일반언어처럼 상징 체계가 된다.

흠(HmMMM)을 사용했던 초기 호미니드들은 공동음악활동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역시 서로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윌리엄 맥닐은 집단 구성원들끼리 공동음악활동을 하는 경험

2003, 3-20쪽.

18) Mithen, 앞의 책, 157-176쪽 내용 요약.

과 관련된 증거들을 검토하면서, 음악활동은 하나가 되는 기쁨을 단지 담아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였다.¹⁹⁾ 그는 이것을 ‘경계 상실(boundary los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면서 공동 음악활동은 “자아의 경계를 지우며 함께 춤추는 사람들과의 동지애를 다지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함께 음악활동을 하는 것은 자아 의식을 약하게 한다. 공동음악활동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공통된 감정상태로 만들어내어 자아정체성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²⁰⁾

언어가 생기기 전의 호미니드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호미니드들에 비해 더 뛰어난 음악능력을 발달시켰을지도 모른다. 미넨은 이 흠(Hmmmm)이 네안데르탈인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게 발달했을 것으로 보며 ‘상징 언어’를 창조해 낸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러 서서히 사라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²¹⁾ 원시 전일적 · 조작적 · 음악적 언어가 상징적 언어, 즉 일반 언어로 발전하면서, 원시 언어가 갖고 있는 전일적이고 조작적인 특성은 사라졌다. 예를 들어, 어떤 원시 음악적 언어 ‘쫂쫂쫂’가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뱀을 조심해라’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며 동료들을 대피시키고자 하는 언어라면, 일반언어로 발전했다는 것은 ‘뱀’을 뜻하는 단어와 ‘조심하라’를 뜻하는 단어가 서로 분리되고 각각이 지시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지시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새로운 결합이 가능해지는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를 조심하라’로 바뀔 수 있는) 체계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추상화가 가능한’ 상징 언어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또 이로 인하여 의사전달의 정확도도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러나 흠(Hmmmm) 언어를 발달시켰던 네안데르탈인들은 호모 사피엔스보다

19) 위의 책, 312쪽.
20) 위의 책, 312쪽.
21) 위의 책, 200쪽.

더 풍부한 음악적 감수성을 발달시켰을 것이다. 상징 언어가 발달될수록 서서히 우리 뇌에서 음악적 능력은 선택압에 의해 축소되어간다. 이는 인지력이 손상되어 언어습득에 장애를 겪는 백치천재의 거의 전부가 절대 음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들에게는 절대 음감을 무지의 상태로 되돌릴 ‘압력’이 없기 때문), 신생아들이 거의 절대 음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성인은 정반대라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위의 진화론적 논의에 따르면 인간의 음악적 능력은 언어적 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억제되어졌다. 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전폭적 횡포는 인간의 음악성을 현저하게 ‘언어적으로’ 변화시켰다. 즉 음악에 언어적 특성들을 옮겨 심기 시작했다. 음악이 ‘언어같은’ 기호적, 상징적 체계를 갖고, 언어적 문법을 갖게 되는 일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음악행위에는 원시시대부터 전달되어 온 음악의 ‘음악스러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유전정보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음악을 만들고 듣는 인간의 성향은 사회적 요인이나 역사적 요인을 따지는 것으로는 다 풀리지 않는다. 인류가 진화하는 동안 인류의 유전자 속에 그러한 성향이 심어졌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미넨은 말한다. 우리의 뇌에 원시 시대부터의 진화의 흔적이 남아 있고, 원시 시대부터 음악을 만들고 향유했던 방식이 우리의 유전정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우리가 음악을 즐기고 행하는 방식에는 그 원시적 향취가 끈질기게 남아있을 것이다.

이 관점은 음악작품 혹은 음악행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음악작품이나 음악행위는 전문가들의 이론적 구성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창조의 순간에도, 청취의 순간에도,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200만년 전부터(초기 호모속의 출현) 형성되어 온 유전자와 신경세포의 반응 시스템을 건드린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곡가들은 이 진화의 초기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전달되어 온 무의식

적 심성들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음악작품, 음악행위의 어떤 점이 우리 뇌세포 속에 각인되어 있는 진화의 흔적과 연관되어 있을까? 나는 이 문제를 밝히는 일이 오늘날 음악미학과 음악분석의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V. 무엇을 다시 생각해야하는가

음악인류학의 등장이 서양음악 중심의 ‘음악’개념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듯이 진화심리학의 등장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음악’ 개념에 또다른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음악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음악’은 200만년 전 인류의 조상이 만들어 놓은 ‘그 음악’으로부터 진화한 것일 것이며, 생각을 더 넓히면, 인류의 조상의 더 조상 격인 유인원 류, 더 나아가서는 포유류, 더 나아가서는 조류 등등 동물들이 갖고 있는 ‘음악 유사한 행위들’로부터 진화한 것일 것이다. 물론 새들이 짹짹 찾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행위와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의 연주 사이에는 극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 뇌가 진화의 산물이라면, 과거 포유류 시절의, 유인원 시절의 음악적 자극을 듣고 반응하는 방식이 유전자 정보를 통해 계속해서 전달될 것이고, 오늘날의 우리 뇌 어느 부분에 여전히 그 흔적을 남기고 있을 것이다. 200만년은, 진화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 뇌가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울만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진화심리학이 제기하는 음악의 기원에 관한 논의들은 1940년대를 즈음하여 활발했던 비교음악학자들의 음악의 기원에 관한 논의들, 추측과 가설의 난무 속에 ‘인종주의의 발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서서히 사그러들었던 그 논의의 반복인 것은 아니

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진화심리학의 가설이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진화심리학은 고고학, 동물행동학, 언어학, 말을 배우기 이전의 영아들의 행동심리학, 뇌과학 등 다양한 과학적 학문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는 점도 과거의 논쟁과 다르다.

이상의 논의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음악미학적 질문은 대체로 ‘의미’에 집중되어 있었다. 음악은, 더 정확하게는, 음악작품은 누군가의 혹은 어떤 집단의 정신의 표현(창작주체의 입장에서)이거나, 무언가로 이해(수용주체의 입장에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악미학은 그 ‘의미’를, 그것의 사회적 의미든, 미학적 의미든, 철학적 의미든, 그 ‘의미’를 밝히는 학문이다.

이것은 인식론적 전통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서양의 미학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서구의 예술음악을 제외한 음악적 현상들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할 것이 없다. ‘왜 우리는 록 콘서트장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 ‘벌떡 일어남’은 우리가 그 음악의 구조를 분석했다거나, 그 음악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고 반응하는 행위에는 음악작품의 의미, 이해, 해석에 대해서 다 말하고도 여전히 짹짹하게 남아있는 ‘잉여분’이 있다. 음악미학은 이 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포함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음악분석은 음악 구조에 대한 분석을 의미했다. 구조에 대한 분석이란, 음들의 관계에 있어 위계질서가 있음을 전제한다. 음악적 구조란 덜 중요한 음(그룹)과 더 중요한 음(그룹)으로 구분되어 들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음악분석이란 어떤 음(그룹)이 어떤 음(그룹)보다 더 중요하게 들림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분석의 문제는 우리 뇌가 여러 복잡한 음들을 어떻게 ‘구조화’하여 인

지하는가의 문제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로브 사전의 ‘분석’ 항목을 쓴 이안 벤트는 “모든 분석적 행위의 근본에 놓여 있는 것은 마음과 음악적 소리가 만나는 지점 즉 음악적 지각이다”라고 말했다. 이 문장을 인용하며, 이안 크로스는 음악분석의 핵심적 관심은 음악적 지각의 본성에 관한 생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²⁾

그러나 음악분석자들은 음악의 구조를 연구함에 있어 음악적 지각의 본성과는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인공적인 구조를 만들어 내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그들은 그 음악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는가의 문제보다는 ‘이론 그 자체로 설득력있는 인공적 구조물’을 만드는 일에 더 치중하였다.

나는 음악분석이 그런 일에 치중하는 것보다 음악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분석, 분석 본래의 근원적 질문에 더 충실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음악분석을 ‘구조에 대한 분석’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면서까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마음이 만나서 발생하는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까지 음악 분석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일이다. 그것은 악보분석을 넘어, 음악과 마음이 현실적으로 만나고 있는 연주분석으로까지 확대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음악과 ‘생물학적 나’가 만나는 생태학적 분석으로까지 확대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음악’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확장이 불가피하다. 서구의 ‘음악’ 개념이 비서구 음악을 만나면서 확장을 요구받았듯이, 이제 ‘음악’ 개념은 동물학과 식물학, 뇌과학과 진화심리학과 만나면서 더 큰 확장을 요구받고 있다. ‘질서 있는 공기의 진동(음악)’에 세포가 반응하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동물도, 더 나아가서는 식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간이 하는 음악적 행위(음악을 만들거나,

22) I. Cross, “Music Analysis and Music Perception”, *Music Analysis* 17/i, 1998, 3-20 쪽.

음악에 반응하는 행위)의 여러 스펙트럼 중에 식물이나 동물이 음악에 반응하는 무의식적 행위들과 유사한 행위들을 포함하지 않으란 법 없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음악’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 역시 없다.

참고문헌

- Adorno, T. W., *Philosophie der neuen Musik*, 8. Aufl.,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7.
- Ascott, R. / 이원곤 옮김, 『테크노에틱 아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Ball, P., “Facing the Music,” *Nature* vol. 453, May 2008.
- Besson, M. & Schön, D., “Comparison between language and music,”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Music*, ed. by I. Peretz and R. Zatorre, Oxford Univ. Press, 2003.
- Blacking, J. / 채현경 옮김, 『인간은 얼마나 음악적인가』, 서울: 민음사, 1998.
- Blood, A. J., Zatorre, R. J., Bermudez, P. & Evans, A. C., “Emotional responses to pleasant and unpleasant music correlate with activity in paralimbic brain regions,” *Nature* vol. 2, no.4, April 1999.
- Böhme, G., *Asthetik, Vorlesungen über Ästhetik als allgemeine Wahrnehmungslehre*, München: Fink Verlag, 2001.
- Churchland, P. S. / 박제윤 역, 『뇌과학과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 Cross, I., “Is the music the most important thing we ever did?, Music, development and evolution,” *Music, Mind and Science*, ed. by Suk-won Yi, Seoul National Univ. Press, 1999, 10-39쪽.
- _____. “Music Analysis and Music Perception,” *Music Analysis* 17/i, 1998, 3-20쪽.
- Drake, C. & ertrand, D., “The quest for universals in temporal processing in music,”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Music*, ed. by I. Peretz and R. Zatorre, Oxford Univ. Press, 2003.
- Evans, D. / 임건태 옮김, 『감정 : 감정의 과학으로 가는 가장 사랑스런 지름길』, 서울: 이소출판사, 2002.

- Goleman, D. / 김선희 옮김,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6.
- Hanslick, E., *Vom Musikalisch-Schönen*, Wiesbaden:Surkamp, 1980, 이미경 옮김, 『음악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서울:책세상, 2004
- Huron, D., “Lost in Music,” *Nature* vol. 453, May 2008.
- Iacoboni, M. / 김미선 옮김, 『미러링 피플』, 서울: 갤리온, 2009.
- Juslin, P. N. & Sloboda, J. A., *Music and Emotion: Theory and research*,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Lacan, J., *Écrits*, Trans. by Bruce Fink,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2002.
- Lacan, J. / 민승기 · 이미선 · 권택영 옮김, 『욕망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4.
- Levitin, D. / 장호연 옮김, 『뇌의 왈츠』, 서울: 마티, 2008.
- Lomax, A., “Song Structure and Social Structure,” *Ethnology* I, 1962, 425-451쪽.
- Lutz, A., Greischar, L. L., Rawlings, N. B., Ricard, M. & Davidson, R. J., “Long-term meditators self-induce high-amplitude gamma synchrony during mental practice,” *PNAS*, Nov. 16, 2004, vol. 101, no. 46, 16369-16373쪽.
- Merleau-Ponty, M. / 남수인, 최의영 옮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서울: 동문선, 2004.
- Merriam, A. P., *The Anthropology of Music*,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 Mithen, S. / 김 명주 옮김, 『노래하는 네안테르탈인』,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08.
- Moisala, P., “Cognitive Study of Music as Culture-Basic Premises for “Cognitive Ethnomusicology,” *Journal of New Music Research*, Vol. 24, 1995, 8-20쪽.
- Panksepp, J., “The emotional sources of ‘chills’ induced by music,” *Music Perception* 13, 1995.

- Patel, A. D., “Language, music, syntax and the brain,” *Nature Neuroscience* 6(7), 2003.
- _____. “Talk of the tone,” *Nature* Vol. 453, 5 June 2008.
- _____. “Music, Language and the Brain” Oxford: Oxford Univ. Press, 2007.
- Peretz, Isabelle & Zatorre, Roberts(Eds.),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music*,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Pinker, Steven / 김한영 옮김,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서울: 동녘 사이언스, 2007.
- Sacks, O. / 장호연 옮김, 『뮤지코필리아』, 서울: 알마, 2007.
- Scherer, K. R., “Expression of Emotion in Voice and Music,” *Journal of Voice* Vol. 9, No. 3, 1995, 235-248쪽.
- Seele, W. P., “Can Neuroaesthetics Earn Its Keep?” presented at the Central Division Meeting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April 2007.
- Sloboda, John, “The ear of the beholder,” *Nature* vol. 454, July 2008.
- _____. *Psychology for Musician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Trainor, L., “The neural roots of music,” *Nature*, Vol. 453, 29 May 2008.
- Trehub, S. E., “Musical predispositions in infancy: an update,”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Music*(ed. I. Perez and R. Zatorre), London: Oxford Univ. Press, 2003.
- Wallin, N. L., Merker, B & Brown, S., *The Origins of Music*,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99.
- Zatorre, R., Chen, J. L. & Penhune, V. B., “When the brain plays music: auditory-motor interactions in music perception and production,” *Nature* Vol. 8, July 2007.
- Zeki, Semir, *Innervis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Splendours and miseries of the brain,” *Philosophical*

-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354, 1999, 2053-2065쪽.
- _____. “Artistic creativity and the brain,” *Science* 293, 2001, 51-52쪽.
- _____. “Neural Concept formation and art: Dante, Michelangelo, Wagner,”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9, 2002, 53-76쪽.
- 박미경 편역, 『탈 서양중심의 음악학』 서울: 동아시아, 2000.
- 서우석, 『음악현상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윤신향, 『윤이상 경계선상의 음악』 서울 : 한길사, 2005.
- 이경분, “음악이 작가에게 미친 영향 -브레히트의 음악관을 중심으로,” 『낭만음악』 15권 제1호(통권57호), 2002년 겨울호, 69-91쪽.
- 이미경, “전통음악과 미적 인식”, 한국음악학학회 · 한국국악학회 공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5.
- _____. “윤이상의 ‘열린’ 형식에 대하여,” 『음·악·학 13집』 한국음악학학회, 2006.
- _____. “음악미학적 영역과 음악이론적 영역에서의 ‘형식’ 개념,” 『음·악·학 15집』, 한국음악학학회, 2008.
- _____. “신경과학과 음악미학의 아름다운 만남,” 『음·악·학 16집』, 한국음악학학회, 2009.

검색어 : 음악을 통한 환각상태, 생물학적 반응, 진화심리학, 생태학적 음악분석

Abstract

**“Die fröhliche Wissenschaft”- Rethinking Music
Aesthetics and Analysis**

Lee, Mi-Kyung

Music serves quite various functions in human societies. Music can make us fall in the mental state of ecstasy, so it has served to communicate with the gods during the ritual in many cultures. Or music binds people in ones, or it functions as a therapy. The mental state of ecstasy through the musical activities or biological responses like tapping foot are not the conscious thinking-products, but pre-conscious process, based on the nervous system, the endocrine system and other biological constellations. This ‘happens’ in the reality, at the moment we are trying to listen to music structurally, critically, or with ‘disinterested-aesthetic attitude’.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se kinds of biological responses or non-aesthetic effects on our body and mind by the music appear together with the aesthetic critics in our consciousness, mix together, so we can not distinguish the pure aesthetic critics and non-aesthetic effects. At the very moment we are talking about the aesthetic critics or social meaning of that music, our aesthetic critics can be dominated by the biological responses in the level of under-consciousness. I am wondering about the causal pathway between the particular musical facts or structure, and the nervous system. Can we describe this pathway?

This paper attempts to use the results of neuroscientific and evolutionary-psychological researches to understand music and musical

behavior, and examine how deeply this new, emerging field of evolutionary psychology can influence the traditional field of music aesthetics and music analysis. All of human mental and bodily activities are conceived, played and perceived through the brain. Thus it can not be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our neural systems. Music analysis is concerned about ‘what one hears’ from the music, so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musical perception should be of central concern to the music-analysis. But most analytical and theoretical literature have devoted more attention to the theoretical structure or analytical method itself, which makes music analysis far from the music hearing. In this paper, I demand the music analytic activity to expand, beyond the structural analysing of musical piece, to analysing of contact point between mind and musical sound. Perhaps, we should analyse the biological, psychological phenomena in music performance, because it appear more in music performance than score-reading. The traditional music analysis must have the ecological perspectives, because the biological responses and non-aesthetic effects of music in the level of under-consciousness as we mentioned are more decisive in the music of non-western societies or recent multi-media arts dominated environment.

Keywords : the mental state of ecstasy through the musical activities, biological responses, evolutionary psychology, ecological music analysis

투 고 일	심 사 일	게재 확정일
2009년 10월 31일	2009년 11월 5일~20일	2009년 11월 30일